



오전 11시

교회소식

찬양*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모여서

주를 기다립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기도인도

봉헌*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찬 633)

말씀교독

사도행전 7:9-16

특별찬양

“내 주여 뜻대로”

말씀선포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찬양과결단*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찬 490)

축도*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인도자

다같이

인도자

다같이

다같이

샤마임찬양대

김원재목사

다같이

설교자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9월 9일 부터 6주간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직분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임직을 받을 장로, 집사, 권사, 피택자들과 현재 직분자들은 모두 참석하기 바랍니다.
3. 건강한 은퇴계획을 위한 소셜배넛 Zoom 세미나가 있습니다.
일시 : 9/20(다음주일) 오후 7~8시
주제: Social Security Medicare 은퇴계획
강사: 차현화 사회복지사 / Zoom : 978-677-2056
주최: 이민자보호교회 / 후원: 시민참여센터
4. Covid-19 확산으로 인한 주정부의 명령에 따라 당분간 주일예배를 Youtube를 통한 영상예배와 현장예배로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행정지침에 따라 인원 제한이 있는 관계로 전 교인을 2개조로 나누어서 격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인원 제한이 있어서 연락받으신 분들만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월~토)에 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단 토요일은 영상과 현장기도회로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5. 헌금을 드리실 분들은 현장예배에서 직접하시거나 혹은 우편으로 혹은 송금하는 방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토 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의 수단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열정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현재 매주 수요일 직분자 훈련이 zoom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분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시간을 통해 성장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일(9/20)부터 3주간 진행되는 건강한 은퇴계획을 위한 zoom 세미나도 가능한 모든 분들이 참석하셔서 유익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오래도록 일상의 안정을 무너트리면서 사회적 피로도가 극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생활의 일상성을 파괴할 뿐 아니라, 육체적 건강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정신적 건강까지도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권태기, 코로나 노이로제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 현상으로는 시위의 증가, 이혼의 증가, 폭력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사람들의 일상의 무기력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외출을 하지 못하고 재택 근무를 오래 해서 그렇기도 하고, 코로나로 빚어진 경제적 생활적 어려움에 빠진 것이 힘들어서 그렇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무기력증은 삶의 의욕 상실로 이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던 학생들도 공부에 관심이 없어지고,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들도 의욕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누구도 코로나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인지라, 위의 열거한 사항에 완전히 무관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은 보다 분명히 우리를 힘차게 살게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의욕있게 이 땅을 살게 됩니다. 만약 의욕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세상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믿음 없음을 확인하며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건축헌금참여 111명 건축헌금누계 \$911,062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정주애,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